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3일(화) 총 6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도로과	담 당 자	• 보행환경개선팀장 박승호 ☎440-3786 • 담당자 장세진 ☎440-3788	
사 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사람중심 도로환경’ 조성 나선다.

- 2021~2025 인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

- '25년까지 보행자길 55개구간, 보행환경개선지구 31개 구간 선정, 총 1천억 원 투입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가로를 만들기 위한 ‘2021~20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시행되며, 인천시는 2015년 제1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 이어 금회 제2차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쾌적한 모두의 공간, 인천의 길 만들기’를 위해 공간적 형태에 따라 ‘걸을 수 있는 길’, ‘걸어야 하는 길’, ‘걸고 싶은 길’로 구분하고, 안전·연계·쾌적·편리·공존성이라는 5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그동안 자동차 소통 중심으로 운영 돼왔던 도로를 사람 중심의 도로

로 조성해, 보행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개선이 필요한 보행자길 총 55개(520억 원)구간, 보행환경개선지구 31개(493억 원)구간을 선정해, 2021년~2025년까지 연차별로 소요재원 총 1,0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차(2016~2020) 계획에서 보행자길 15개, 보행환경개선지구 9개를 지정·추진한 것에 비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원도심의 통학로와 어린이공원, 놀이터 인접 도로에서 차도와 보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기법을 적용해,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 확보를 중점으로 보행공간을 계획한 것이다.

또한 도로폭원별 도로 표준횡단을 제시해 최소 보도 폭을 2.5m 이상으로 확보하게 하여 기존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부 예규, 유효폭 2.0m 이상) 보다 강화한 것으로, 도로에서 사람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했다.

특히 넓은 범위의 종합적 보행환경개선을 확대·추진하기 위해 선 개념의 보행자길(전차 15개→ 금회 55개) 정비 뿐 아니라 면 개념의 정비를 의미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전차 9개→ 금회 31개)를 확대 선정함으로써, 종합적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보행통행량의 증가를 유도하고,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년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사

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지구 2개소(도화역 북측구역, 부평시장 일원)를 선정·제한해, 해당 구청과 함께 국비(사업비 50% 지원) 확보를 위한 사전계획도 수립했다.

이러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 정책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사람중심 도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인천은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2016년 대비 0.53%)하고, 체육·공원·문화집회·유통시설 등 보행유발 시설의 증가로 통행량이 증가(목적통행량 1.01%, 수단통행량 0.54%)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에서 보행환경 개선 대상지를 확대(전차기준: 길 15개소→55개소, 지구 9개→31개소) 선정해 보행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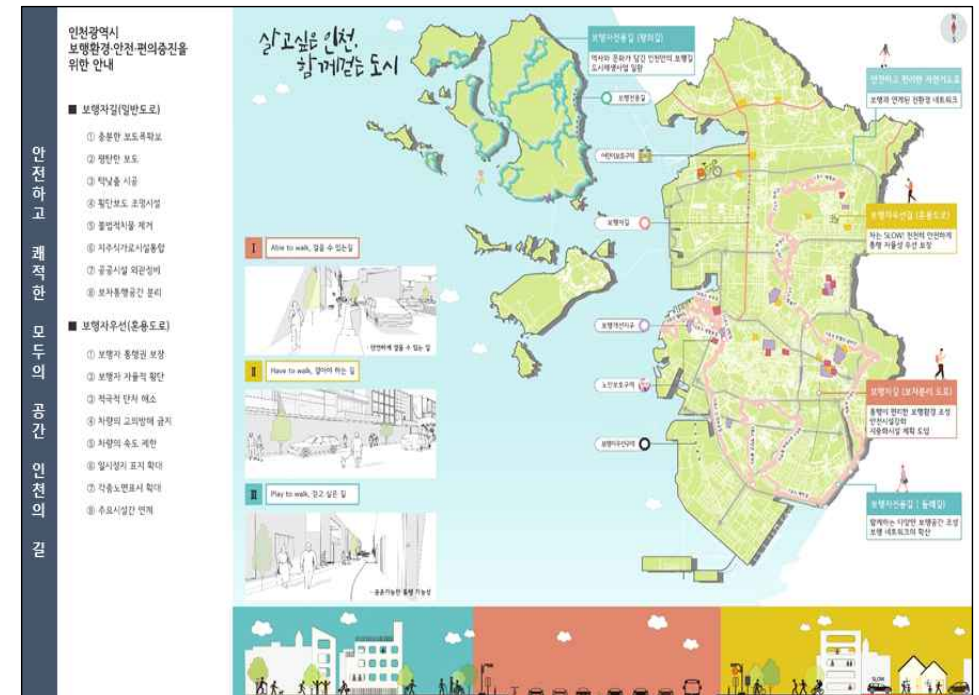
이어 “보도 유효폭 기준을 강화해 사람의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안전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시민 안전보장과 함께 2025년까지 연차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재원조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참고자료

## ※ 2016년 대비




- 인구 증가: 0.53% 증가
- 통행량 증가: 목적통행량(출퇴근, 등교, 쇼핑 등) 1.01% 증가  
수단통행량(도보, 승용차, 버스, 지하철 등) 0.54% 증가

## <붙임 1> 2021~2025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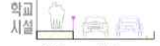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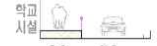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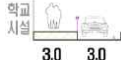


<붙임 2> 교통약자 대상시설(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표준횡단

[표 5-82] 공공시설(공원, 놀이터 등) 인접구간의 표준횡단(안)

	10m이하	8m이하	6m이하
			
교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우선길을 지정·운영하며, 인접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추가 확보</li> <li>• 보행자의 통행은 구간내 자유로우나, 차량 및 자전거는 도로의 중심부로 제한</li> <li>• 통행체계별 보차의 분리는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li> </ul>		

[표 5-80] 통학로(10.0m이하) 표준횡단(안)

폭원	양방향통행	일방통행
10m	 3.5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공간은 분리시설을 이용하여 명확히 분리</li> <li>• 양측보도 설치시 단차를 두어 B=3.0m이상, 편측 설치시 3.5m이상 확보</li> <li>• 자전거의 보도내 주행<sup>43)</sup>은 금지하며, 1.5m이상 별도 폭원확보시 허용</li> <li>• 차량서행,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교통정온화기법 적극도입</li> </ul>	 3.0 4.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내 가로상 주정차 금지</li> <li>• 차로부는 방향별 차로 구분</li> <li>• 임시 정차공간 설치시 차로내 설치</li> <li>• 자전거도로 설치시 보도와 동일한 높이</li> </ul>
8m	 2.5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향별 차로 미구분</li> <li>• 편측 보행공간 2.5m(분리시설 설치)</li> </ul>	 3.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도로 설치시 보도와 동일한 높이</li> <li>• 통학로내 임시 정차금지</li> </ul>
6m		 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측 3.0m의 보행공간을 확보</li> <li>• 1차로 일방통행을 원칙</li> <li>• 자전거 주행금지</li> </ul>

<붙임 3> 시범사업 대상지 제안

